

2011. 1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신년메시지

가정예배 창세기 · 출애굽기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2011. 1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신년메시지

가정예배 창세기 · 출애굽기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1

2011
January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 창세기 43장	3 창세기 44장	4 창세기 45장	5 창세기 46장
9 창세기 50장	10 출애굽기 1장	11 출애굽기 2장	12 출애굽기 3장
16 출애굽기 7장	17 출애굽기 8장	18 출애굽기 9장	19 출애굽기 10장
23 요한복음 6장	24 요한복음 7장	25 요한복음 8장	26 요한복음 9장
30 요한복음 13장	31 요한복음 14장		

February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6 창세기 47장

7 창세기 48장

1 창세기 42장

8 창세기 49장

13 출애굽기 4장

14 출애굽기 5장

15 출애굽기 6장

20 출애굽기 11장

21 출애굽기 12장

22 요한복음 5장

27 요한복음 10장

28 요한복음 11장

29 요한복음 12장

교회 주요일정

1월 1일

신년감사예배

1월 2일

제1차 성찬식

1월 23일

선교주일

나의 주요일정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1~18)

오늘은 2011년 새해의 첫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신년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신년의 첫 메시지를 집중해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요 3:16~17).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삶을 바꾼 아주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인간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의 차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적인 지혜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지혜를 대표합니다. 그는 구약성경만을 믿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요 3:1). 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본받기를 원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요 2:24~25).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것을 통해서는 그 어떤 선한 것들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요 3:2).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였습니다. 죄인들과는 정반대의 신분을 가진 덕망 높은 교사이자 현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참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적인 지혜로는 영적 지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혜

예수님은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지혜로는 가능하며 세상적인 지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학습, 훈련, 성장을 위한 기술과 방법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세계의 교회들은 좀 더 나은 성도들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세상적인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그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영적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요 3:4)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학식이 풍부하고 존경받는 경건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은 거듭
남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더 깊
이 설명하셨습니다(요 3:5~10).

영적인 지혜는 중요하다

영적인 지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가 오늘 듣는 설교가 매
우 강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종착지입니다. 최선
의 노력, 열의, 판단력이 여러분을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
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코 세상적
인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 2:14~15). 예수님과 만남이
있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결코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
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너무 포장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계 3:17~18). 많은 외식적
인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영적으로 눈
멀고 가난한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베드로와 요한은 없었지만 니고데모는 그곳에
있었습니다(요 19:39).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니고데모는 구원을 찾는 것
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이 열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유한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요 3:3). 예수님
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아멘.

- 1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9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42장 · 찬송가 407장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실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흉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었고(12장), 이삭도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26장). 야곱 또한 노년에 흉년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베나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으며,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로써 오래 전에 요셉이 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창 37:5~11). 형들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치미를 떼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그들의 해명을 들은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삼아 막내 베나민을 데려오으로써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일가를 애굽에 와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준비를 이렇게 오래 전부터 진행시키셨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창 42:20)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매순간 감사하게 하소서. ② 2011년, 출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
 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2011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참 소망의 빛
 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
 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며 나아가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는 바울
 의 고백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이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 신령한 예
 배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마십시오. 천국일꾼 양성

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녀답게 세계 및 국가적 위기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 일 1:7).

야곱은 한 번 움켜잡으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놓치지 않고 굳게 부여잡기를 원하였던 것은 '재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움켜잡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움켜잡으면 아버지의 부와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야곱은 사랑을 움켜 잡았습니다. 라헬을 붙잡고 14년 동안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 후에 야곱은 재산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그가 온갖 정성을 다해 모았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는 당장 먹고 살 세 끼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재산도 사랑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베냐민 하나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강제로 빼앗아 가기 전에는 놓은 적이 없던 베냐민을 야곱이 자진해서 내려놓습니다. 집착의 손을 놓아 버리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이제까지 야곱을 존재하게 한 커다란 힘인 재산과 사랑에 대한 집착이 하나로 투영되었던 베냐민을 놓아버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창 43:14)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 놓고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집사가의 복음교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참된 중보자

창세기 44장 · 찬송가 93장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자신을 팔아 넘길 때와 같은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형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잃고서 베냐민을 각별히 아끼며 살아온 아버지 야곱을 생각할 때, 형들은 도저히 베냐민을 버려두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동생 대신 자신이 처벌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무죄를 밝히려고 애쓰기 보다는 다만 총리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종종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설득으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노예로 팔았습니다(창 37:26~27).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의 애급행을 동의하였습니다(창 43:3~15). 이번에도 유다는 총리 앞에서 호소합니다. 그의 호소는 단지 임기응변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승화된 인격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상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태도는 요셉을 감동시켜 스스로 정체를 밝히게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요셉은 전과는 다른 형들의 완전한 변화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에게 유다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창 44:18)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주님의 섭리

창세기 45장 · 찬송가 449장

4

화요일

현신적인 유다의 호소를 듣고서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 형제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왔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요셉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놀라게 됩니다(25~28절).

이처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당장은 우리 인생에게 슬퍼 보이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순간순간 붙드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붙드시며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만나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때 선불리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5)

기도제목

① 슬픔과 아픔 중에도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는 그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 빚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실행되었습니다(3~4 절).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표면적인 이유는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독특한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우월감으로 인하여 타 민족과의 교류를 기피하였으며, 목축하는 자들을 혐오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와 달리 애굽에서는 이방 문화에 동화될 위험이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자신의 좁은 틀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큰 틀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비록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한 과정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창 46:4)

기도제목

- 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으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 ②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을 데리고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마침내 야곱의 자손들은 단순히 일개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로서의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4절).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인들과 떨어진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착 과정에는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번창케 함과 동시에, 애굽 내에서는 따로 분리시킴으로 영적인 순수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센에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정착 기간이 그렇게 오래 길어질 것이라는 사실과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경륜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경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경륜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최후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승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창 47:9)

기도제목

①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창세기 48장 · 찬송가 391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은 마침내 죽음을 앞에 두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16절). 이것은 야곱의 평생을 지탱해 왔던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여호와 신앙과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자신의 일생을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택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이 장자가 아닌 차남에게 임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볼때 언약의 계승이란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구원사건에 있어 그 선택과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이요, 고유한 사역임을 야곱의 축복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창 48:21)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창세기 49장 · 찬송가 283장

8

토요일

‘야곱의 축복’으로 불리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1절). 이는 열두 아들의 장래에 관한 것으로 축복과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자신의 의지나 편견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미래에 대한 대언일 뿐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열두 아들의 장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의 예언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모든 삶은 이미 운명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실제 삶에서도 매사에 수동적이며 무기력한宿命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열두 아들 각자의 행위와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과 책임 간에는 갈등이나 충돌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에 대한 말씀이 주옥같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와 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은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듯 우리 생애에도 규되신 예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기도제목

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33세의 한 청년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 속에서 월요일마다 강론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 값을 치루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 또 감사하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십자가 상에서 33세의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메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심에 의지하여야 하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사건에 대해 믿건 믿지 않건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종교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분명히 역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 니 믿는 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이 되어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사는 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며, 종교적 의미에서 쓰여졌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한 후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게 되므로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기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먼 훗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늘 찬송 부르며 영원한 삶, 즐거운 삶을 누리며 서로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다.

한현석(안수집사, 2교구)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창세기 50장 · 찬송가 607장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는데, 특히 요셉은 후일 후손들의 출애굽을 예견하고 그 때 자신의 유골을 함께 가지고 올라 가라고 유언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대 하라”(25절).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족장들에게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은 그곳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란 오직 가나안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약속의 땅’,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과 목표는 눈에 보이는 지상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종말에 있게 될 심판과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이라면 믿음의 족장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곳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6). 우리의 본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창 50:24)

기도제목

① 세상을 향해 있는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출애굽기 1장 · 찬송가 543장

10

월요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급속한 번성을 두려워하여 극심한 노동과 산파를 통한 남아 살해로 이스라엘을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16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 속에서도 십브라와 부아와 같이 연약하지만 신실했던 믿음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더욱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해졌던 애굽의 탄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필연적 개입을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전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 경륜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기에 접어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소개함으로써 환난 중에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 자울성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임마누엘의 복음을 지금 죄와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출 1:21)

기도제목

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님을 위한 고난

출애굽기 2장 · 찬송가 314장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동족의 고난을 차마 보지 못했던 모세는 애굽의 병사를 쳐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12절).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혈기와 영적 미성숙을 지적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진실의 한 단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마침내 이스라엘 구원의 큰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도 모세에게 하나님과 동족을 사랑하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성공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으려는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향할 때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누리는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의 언약을 기억하사”(출 2:24)

기도제목

①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기꺼이 받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총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총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혈기왕성한 젊은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목자로 늙어가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10절). 이에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둘러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구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 거듭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셨던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철저한 자기부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철저한 자기부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신앙자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

기도제목

① 내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13절)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표징으로 보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손에 나병이 걸렸다 낫게 하는 이적들을 모세에게 차례대로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 같이 된지라”(6절). 이 이적은 모든 만물을 뜻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다스리는 자이심을 보여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이적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은 이적들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시며, 모든 죄인들이 의지할 소망의 주님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핑계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출 4:5)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우리의 입술이 핑계대는 입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출애굽기 5장 · 찬송가 343장

14

금요일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바로 앞에 서기를 꺼렸던 심약한 모세에게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해 주신 후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1~9절)을 시작으로 이 요구에 심히 분노한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전보다 더욱 혹독하게 다루는 장면(10~18절), 그리고 이전보다 거친 대우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빚발치는 원성을 하는 장면(19~23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사악하고 어두운 죄의 권세로부터의 집요한 도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처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환난 날에 기도합니까? 듣고 배운 말씀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그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게으르고 무가치한 것이라 꾸짖었듯이, 오늘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벗 되어 살아갈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어 순간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만 은혜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출 5:23)

기도제목

① 절망의 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드리게 하소서. ② 2011년, 종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한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직접 요구했던 모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선 실망한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1절). 하나님은 절벽같이 압도한 상황이나 세상의 권력자 앞에 너무도 무기력했던 모세 자신을 보지 말고 오히려 이 역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일깨우셨습니다(2~13, 28~30절).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언급됨으로써(14~27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권위를 인준해 주신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이 심각한 절망 중에 놓였을 때 그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 권고하시며 새 힘을 부여 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명예와 권위를 부여 하시며, 또 앞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스스로는 날마다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나는 여호와이니라”(2~3, 8, 29절)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늘 밑에서 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증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출 6:2)

기도제목

① 초점을 나에게 두어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주께 두어 소망을 얻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성경의 첫 번째 절은 성경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다. 진정으로 창세기 1:1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만물을 지배하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한 절은 세상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인간의 잘못된 모든 철학들을 반박한다.

- ① 창세기 1:1은 무신론(athe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 ② 창세기 1:1은 범신론(pantheism,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신이라는 믿음)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이다.
- ③ 창세기 1:1은 다신론(polythe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 ④ 창세기 1:1은 유물론(material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물질은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⑤ 창세기 1:1은 이원론(dual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계셨기 때문이다.

⑥ 창세기 1:1은 인본주의(humanism)를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며,

궁극적인 실체이시기 때문이다.

⑦ 창세기 1:1은 진화론(evolutionism)을 반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후 11:14~15).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현혹할 것이다. 이
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매순간 성경을 놓지 말자.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를 만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
로 이끈다. 아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 찬송가 432장

16

주일

바로의 강력한 반발(출 5:1~14)과 동족 이스라엘의 극렬한 불만(출 5:15~21, 6:9)으로 위기에 몰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 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시어 또 다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1~7절). 이 때 모세는 첫 번째 요구 때보다 더욱 강력한 어조로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팡이를 사용한 이적으로 애굽 종교(뱀으로 상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지팡이로 상징)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8~13절). 또한 애굽의 젖줄이요 애굽 종교의 근거지인 나일 강의 물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는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14~25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고수하는 자에게는 오직 처절한 죽음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마음이 강박해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각종 방법으로 신앙의 길을 가려 하는 성도들을 막습니다.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며 구원의 손을 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고집이나 이기심, 욕심 등을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5, 17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출 7:13)

기도제목

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주를 믿어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애굽 종교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처참한 재앙에도 조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좀 더 강력하고 전면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16~15절)과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16~19절),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20~32절)을 연거푸 내리심으로써 모든 애굽인들의 삶을 혼돈 가운데로 몰아 넣으십니다.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생산과 풍요의 신 헤카(Heka) 또는 헤키(Hekt)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이것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애굽 종교가 거짓임을 분명히 보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그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20~24절) 자신이 택한 백성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좁은 시안과 사고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계속 체험한 술객들은 드디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19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같은 권능의 역사 앞에서 버티고 거역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출 8:19)

기도제목

①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보아도 믿지 아니하는 단단한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강력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그 마음이 강박해져만 갔던 바로에게 좀 더 파괴적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축에 악질이 발생토록 하여 고통 중에 죽어가도록 하셨으며(1~7절), 악성 피부병인 독종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인들의 육체를 심히 괴롭히셨고(8~12절), 더욱이 그 파괴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박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인과 애굽의 모든 소산물을 황폐화시키셨습니다(13~35절). 앞선 재앙들(출 7:14~8:32)이 애굽인들의 생활을 잠시 괴롭히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내려진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인들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자는 그 소유와 삶의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그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까? 구별된 자로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그들과 섞여서 동일한 행동을 하며, 혼탁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여 다급할 때에는 허락하지만 안정을 얻고는 다시 강박해집니다. 여러분은 변덕스런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니까? 오직 마음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출 9:21)

기도제목

①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 낸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②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일곱 차례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강타하는 동안 여전히 교만하여 계속해서 강박해져 가기만 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지위를 위협하며(7절)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가공할만한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덟 번째 매뚜기 재앙을 통하여 우박 재앙으로 피폐해진 애굽의 산업을 완전히 멸절시키셨고(1~20절),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종교를 대표하는 태양 신 '라' (Ra)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밝히시는 동시에 애굽인들의 마음 속에 어두움과 같은 끝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셨습니다(21~29절). 애굽 전역에 절망의 어두움이 맹위를 떨치고 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던 땅에는 오히려 밝은 광명이 비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표징은 또한 우리들의 증언이 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11절)”고 말하는 바로처럼, 오늘날 사탄도 동일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분 순종이 아닌 전체 순종을, 일부분의 삶이 아닌 전체적인 헌신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타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결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출 10:2)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부분 순종이 아닌 전체 순종을, 일부분의 삶이 아닌 전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소서.

아홉 가지 재앙의 종결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마침내 허락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가 된 장자 사망 재앙을 알리는 최후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심(1~3절)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끝끝내 반대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장자 사망의 재앙이 곧 닥침을 계시하심(4~8절), 그리고 그 재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심(9~10절)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자신에게 순복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그 죄악들을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면 악인들에게 반드시 엄정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이면에 의인에 대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재앙을 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4절)라는 말씀은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 즉 여호와이십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과 완악한 마음조차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 11:7)

기도제목

① 이끄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와 섭리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에 앞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참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가족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했고(5,1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유월절 양의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7,22절). 열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의 전역은 큰 통곡 소리로 가득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의 규례대로 행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구원을 얻었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모두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인류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찾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히 9:22).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히 9:14,2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과 선행,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총의 주님께 늘 감사하며 매순간 담대히 전진합시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 12:1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주께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

요한복음 5장 · 찬송가 200장

22

토요일

본문에서 '성경' (39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구약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모든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이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전하는 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할 때 복음을 전함에 능력과 생명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해지고, 완전해졌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상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영생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유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랬기에 성경의 참 진리를 알지 못했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함께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상고할 때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기도제목

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감사로 바뀐 선교

“사람 없어요. 차 없어요. 양 없어요. 물 조금 있어요. 길 나빠요. 먼지 많아요. 그곳 나빠요.” 사역지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현지인 운전기사의 서툰 우리말이다. 비포장 길을 무려 11시간 달려가는 동안 그곳에 많았던 양 떼며, 말 타고 달리는 목동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을 선교지로 정하고 훈련을 시작했을 때부터 팀원들 모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역지를 바꾸지 않았다. 각오는 했지만 선교지로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을 달리는 봉고차의 흔들림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바람과 함께 가끔씩 일어나는 먼지와 뜨거운 열기는 더욱 괴로웠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고통은 현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며 금세 감사로 바뀌었다. 주님께선 우리가 만날 많은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다. 이 지역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마다 비포장 길을 대략 2시간 이상 달려서 찾아간 곳이기에 가능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방문하여 예수님을 전했다. 라마불교인이 90% 이상인 나라여서 아이에게 준 전도용 책받침을 빼앗으며 야단치는 엄마와 영접기도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문장을 읽고 “아멘”하며 영접 기도까지 따라했다.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팀원 모두가 힘들고 먼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 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은혜 받았다는 거의 비슷한 선교보고를 들을 때마다 식상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역을 통해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받았음을 보고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깨달았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라고 감사하며,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언제 다시 이곳에 와서 미처 다 방문하지 못한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박남주(인수집사, 4교구)

표적을 보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있던 무리들은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로, 주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다시 일으키시어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지만, 이와는 달리 무리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썩을 양식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용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 합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며 육신의 만족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심성 깊은 곳에는 깊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더욱 완벽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 곧 자기 의를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랑과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이며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만을 날마다, 매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요 6:27)

기도제목

①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나 곧 썩어질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안식일의 주인

요한복음 7장 · 찬송가 43장

24

월요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께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육신의 안식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제정의 근본 정신인 구원과 사랑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일 법을 울무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까지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자신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에 참된 안식, 즉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분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요 7:2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에게 진리를 누릴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곧 제자들입니다(요 17:14). 이들은 주 안에 거하는 실존자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로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길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요 1:17).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려면 진리 자체가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키고 견디지 못하며 결실이 없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여 결실을 맺었습니다(마 13:18~23). 예수께서 전해 주신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놓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의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32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기도제목

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에 맹인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듯이 맹인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겨있던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진흙이 맹인의 눈에서 씻겨졌을 때 죄의 명에도 씻어지듯,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죄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의 고백이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자가 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는 것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맹인의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무서워하여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와는 달리 맹인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25,33절)의 고백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요 9:40)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 봄으로 우리 죄의 심각함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 찬송가 569장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양을 지키고 인도하며 심지어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는 목자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1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심은 참 목자이신 자신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감 같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목자 노릇을 하였으나 스스로 말씀을 배척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고 시비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26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진리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33절). 이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27절)의 고백이 우리 영혼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②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잘 나타내어 주는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계시던 곳에서 이들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요 14:6).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십니다(25절).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었습니(26절).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의 핵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어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주이심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진리가 드러날수록 악한 세력의 반대가 더욱 심해짐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닥쳐오는 어떤 악한 세력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좇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기도제목

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었습니다(7절).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의 금전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전파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40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귀하게 여겨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42~43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심각함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괴로움과 탄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요 12:44~45)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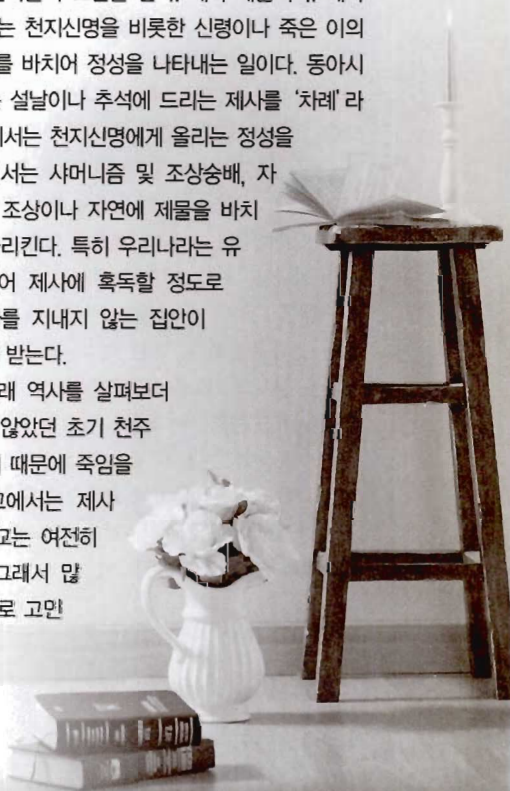
①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내려 놓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타협하지 맙시다!

설날만 되면 많은 신자들이 고민을 한다. 제사 때문이다. 제사(祭祀) 또는 제례(祭禮)는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게 먹을거리(음식)를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는 설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에서는 천지신명에게 올리는 정성을 나타내며, 넓은 의미에서는 샤머니즘 및 조상숭배, 자연숭배 등과 관련하여 조상이나 자연에 제물을 바치는 일반적인 의식을 가리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효사상과 연결되어 제사에 혹독할 정도로 철저하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나 사람은 항상 비난을 받는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 역사를 살펴보다도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인정하였지만 개신교는 여전히 제사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제사 문제로 고민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홀로 믿는 불신가정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회의 선생님들은 분명히 “제사를 지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친다(고전 10:14). 이 가르침대로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께 말했다가는 결과는 뻔하다.

최근 진보적인 기독교단체에서는 제사는 우상숭배와 별개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면서 조상들에 대한 예(禮)를 갖추어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기독교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기 때문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출 20:4 ; 레 26:1 ; 신 4:23 ; 고전 10:7 ; 살전 1:9 ; 계 22:15). 비록 핍박이 있고 손해를 볼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대상과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전 8:4).

제사를 드려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상께 절하기 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용히 무릎 꿇고 돌아가신 분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자. 그들을 거둬나게 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21).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새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시명과 앞 일을 밝히 보여 준 것이며, 새 계명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 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5절).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행위는 종이 상전에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한 본을 보이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서 그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서로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히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로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날마다 매순간마다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합니다.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십니다. 서로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며 섬기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

기도제목

①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며 낮아짐으로 섬기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 찬송가 366장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실 것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남아 있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그곳에 함께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3절).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평강에 대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표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8절).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빌립이었지만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실존의 고백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언을 붙들고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기도제목

① 주의 말씀을 이성적 분석과 판단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믿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1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 길을 향하여



십자가 길을 향하여

신자의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 길은 좁고 험하며,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합니다.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12월 31일 룻기 2:14

보아스의 식탁

예수님의 초대는 죄인을 위한 은총의 기회다

1월 7일 빌립보서 3:12~14

꽃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1월 14일 시편 95:1~8

오라 우리가 경배드리자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다

1월 21일 빌립보서 4: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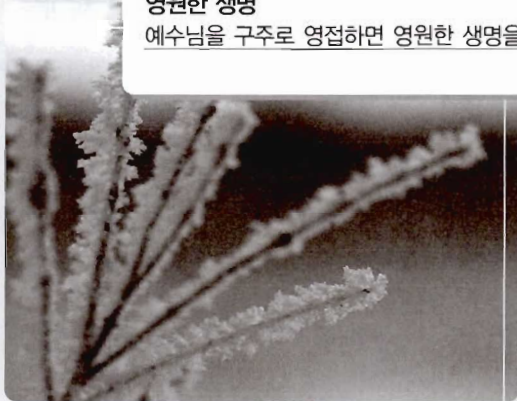
선교사 바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1월 28일 요한일서 5:11~13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 씀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0년 12월 31일

1 과

보아스의 식탁

| 초점 |

예수님의 초대는 죄인을 위한 은총의 기회다

| 찬송 |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룻기 2: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 교회에서는 홀수달 매월 첫째 주일과 성금요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아스의 식탁에 관한 말씀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성찬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큰 부자였습니다(룻 2:1). 엘리멜렉의 혈통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룻 4:18~22).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마 1:5).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 보아스의 가계(家系)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보아스의 초대

보아스는 롯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 보아스를 만나기 전 롯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롯 1:16~17

롯의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여인 롯은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롯은 곧바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들판에서 이삭을 주워야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녀는 보아스 소유의 들판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보호와 식량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에 보아스는 조출한 빵과 음료가 있는 식사에 가난한 여인 롯을 초대했습니다.

롯 2:3

롯 2:9

롯 2:14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마 26:26~28

대략 1천 년 전에 예수님의 선조 보아스는 한 사람을 위한 조출한 식사를 준비했고, 그 후 보아스는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평화를 주십니다.

요 14:27

요 15:13~14

나오미는 모압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행동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한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룯과 나오미는 살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룻 1:13)라고 외쳤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룻 1:21)고 말했습니다.

※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일과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나오미는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손자이자 룯과 보아스의 아들인 오벧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 1:5 /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는 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은 조출한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놀랍습니다! 롯과 보아스는 빵과 음료가 놓인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1천 년 후에 그들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주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모든 성도를 위해 마련된 성만찬이 제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욥 42:2 / ☐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시 33:11 / ☐☐☐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으로 연약한 롯을 초대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초대는 죄인을 위한 은총의 기회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2011년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1년 1월 7일

2과

풋대를 향하여

| 초점 |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 찬송 |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문 | 빌립보서 3:12~14

¹²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노라 ¹³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
려고 ¹⁴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삶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좋은 때입니다.

※ 2011년, 믿음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잠 16:9 _____

잠 19:21 _____

오늘 성경본문에서 바울은 제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중 여러 권을 쓴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고는 믿을만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적인 말씀을 가르쳐 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의 진심어린 권고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의 삶 그리고 상급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모두 실수 합니다.

빌 3:12~13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수 년 동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 왔지만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고 그는 회개했습니다(행 9:4~6). 심지어 바울은 아직 그 어떤 것을 이루거나 얻지 못했을 때에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이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요일 1:9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죄의 기억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되었든지 선한 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 속에 안주하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실수들을 맡기고 그것들에서 자유하십시오. 그것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히 9:14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빌 3:13 /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_____

바울은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삶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딤후 4:6~8 _____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했기에 바울의 믿음에 과거 경험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항상 문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 중에도 평안합니다.

※ 요 15:18~19, 16:13 ; 롬 5:1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믿음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이기고, 두려움은 패배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빌 3:14

바울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히 11:6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 22:12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 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영원한 상급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히 10:35

골 3:24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신자인 우리의 미래는 환상적일 것입니다. 진실로,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 1:3 / 이 예언의 말씀을 자와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갈 6:9 _____

고린도전서 2:9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상들을 우리는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1년 1월 14일

3과

오라 우리가 경배드리자

| 초점 |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다

| 찬송 |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 본문 | 시편 95:1~8

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②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 ③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④ 너희는 프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달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심령을 가볍게 하십시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몸이 굳은 자와 같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성도로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각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십시오

시 5:7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혹은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에게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께로 나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시 95:1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는 항상 경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전심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연주하거나 노래를 할 때 그 찬송은 우리의 변화된 삶과 온전한 헌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연주하고 노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배 찬송들은 주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초점이 있습니다.

계 5:9~10

계 5:13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진심이 없는 연주나 노래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시 95:2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십니까? 감사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일은 감사의 마음을 더욱 크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빌 4:4

골 2:6~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경배와 걱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시편 103:1~5 말씀을 묵상한 뒤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살전 5:16~18

참된 경배는 우리의 생각을 찬양으로 바꿔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경배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시 95:3~6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에서의 겸손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만을 버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 95:7~8

우리는 항상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매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진심어린 찬사와 최고의 경의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 4:24 _____

롬 12:1 _____

잘 듣는 것은 예배에 있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끄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시 59:16~17). 지금 나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주와 노래, 감사와 경배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예배의 시작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2. 모든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11년 1월 21일

4과

선교사 바울

| 초점 |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 찬송 |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 본문 | 빌립보서 4:18~19

⁽¹⁸⁾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¹⁹⁾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모든 선교사 중에 최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놀라운 감사 편지는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 16:12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가난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특별한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돌보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보여 준 그의 모습에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믿음의 예를 드리지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빌 4:18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잘 준비했음에도 선교에 대한 불평이나 요구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빌 4:4~7

롬 12:12~13

베드로도 권고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3~14).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빌 4:19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 ☐ 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줌으로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특히 풍족하지 않음에도 주는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눌 때의 기쁨을 고백해 보십시오.

줌은 파종과 수확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은총들을 누리게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자원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들 중 약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를 더욱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시 126:5~6

사 61:3

우리에게는 구주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시 23:1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 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골 2:2~3

골 2:6~7

믿음으로 살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결코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들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 골로새서 3:1~4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 뒤 그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마 6:25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성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단기선교'를 통해서 열려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행 1:8 _____

막 16:15 _____

고전 9:16 _____

| 믿음의 기도 |

1.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 서게 하소서.

2011년 1월 28일

5과

영원한 생명

| 초점 |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찬송 |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 본문 | 요한일서 5:11~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¹²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¹³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유한하고 또 다른 세계는 영원합니다. 유한한 세계는 매일 생명과 죽음의 문제로 가득합니다. 매일 몇 초 간격으로 누군가가 태어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죽습니다. 이 유한한 삶의 영역은 많은 병원과 묘지입니다.

히 9:27 _____

요 5:29 _____

이 세상의 대부분의 역사는 잘 분석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각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들, 철학자들, 의학자들은 죽음을 막기 위하여 성과 없는 연구와 시도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이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해 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요일 5:20 _____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가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시 90:10 /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와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약 4:14 /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나라

모든 새로운 의학 기술의 전문가들조차도 생명을 아주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죽음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요일 5:11 /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을 주신 것과 이
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의 약속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의 삶이 단지 영원을 위한 서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눈물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이나 묘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토록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우리는 선물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엡 2:8 _____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롬 6:23 _____

요 17:3 _____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에 처한 가족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영생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요 14:27 _____

고후 5:8 _____

언제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 5:24 _____

요 6:51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_____ 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소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롬 2:5 _____

※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써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인 것과 자신들이 가진 지체들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요 1:12 _____

요 14:1~2 _____

요일 5:13 _____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심지어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사랑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 믿음의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2.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이 더욱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남성 구역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오라 우리가 경배드리자

- ⁽¹⁾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 ⁽²⁾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
- ⁽⁷⁾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 ⁽⁸⁾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1~8)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가볍게 하십시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성도로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각 성도가 드리 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거나 혹은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시간이 풍성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에게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께로 나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시 95:1).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는 항상 경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전심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연주하거나 노래를 할 때 그 찬송은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온전한 헌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연주하고 노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배 찬송들은 주 하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초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서도 주님께 노래하며 경배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5:9~10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рода 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13은 천국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떻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것인지를 보여 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진심이 없는 연 주나 노래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시 95:2).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십니까? 감사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일은 감사의 마음을 더욱 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종종 나의 귀는 감사에 대해서 듣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이 일 또는 저 일을 어째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실로 감사는 우리를 우리의 공급자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경배 드림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여 우리를 흠족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무엇에 여러분의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

신 은총들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1~5). 우리는 경배와 걱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참된 경배는 우리의 생각을 찬양으로 바꿔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숭배함으로 주님께 경배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95:3~6).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정중한 숭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배에서의 겸손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만을 버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앞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창조주 앞에 공손한 피조물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시 95:7~8). 우리는 항상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매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제발, 진심어린 찬사와 최고의 경의가 없는 경배를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는 것은 예배에 있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시 59:16~17). 지금 나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주와 노래, 감사와 숭배함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1월

Copyright©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